

건설사도 코로나에 발목… 분양 연기·사이버 견본주택

전염병 확산 막고 방문객 모집위해 일정 미루거나 개관 취소 줄이어

수요량 몰려 청약 경쟁률 상승 우려

아파트 분양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변수를 만났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업체는 당초 예정된 분양일정을 미루거나 견본주택 개관을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안전 장치 설치를 통해 견본주택을 여는 곳도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이달 분양예정인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아파트 견본주택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청약 당첨자 발표일까지는 운영하지 않고, 청약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경기도 수원시 매교동 209-14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0층, 52개동 총 3603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조감도.

59㎡부터 110㎡까지 총 1795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3.3㎡당 평균분양가는 1810만원이다. 오는 14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이후,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올해 첫 분양예정 단지인 대구 청라힐스자이 견본주택 개관을 7일에서 21일께로 잠정 연기키로 결정했다. GS건설 관계자에 따르면 정확한 개관 일정은 2월 넷째 주 확인이 가능하다.

청라힐스자이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로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분양을 제외하고 민간에서 분양 일정을 미룬 사례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추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전염병 확산을 막고 많은 방문객을 모집하면서 일정을 연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것.

GS건설이 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기도 과천동 자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접수를 받을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견본주택을 개관하지 않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한다. 과천제이드자이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있는 단지로 총 647가구, 전용면적 49~59㎡로 구성돼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월 분양휴업 상태에 이어 신종코로나 발생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점과 오는 4월 총선이 있다는 점은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수도권, 지방 등 분양 수요가 적은 곳 위주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 있다"고 전했다.

2월 유일한 서울 분양 예정 물량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는 청약 일정을 연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행하고, 총 1529가구 중 962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 59~84㎡로 구성돼 있다. 이 단지는 그동안 청약 일정이 계속 미뤄져 왔던데다 기대 시세차익이 큰 단지로 꾹혀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SH는 최근 청약일정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당초 5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청약 접수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SH는 축이를 봐가면서 빠르면 2월 말쯤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달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의 이관됐고, 4월 총선으로 마케팅 등 제약이 있어 건설사들은 마냥 일정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견본주택을 오픈하는 단지가 등장하는 이유다.

먼저 대림산업 계열사인 (주)삼호는 'e 편한세상 금산 센터하임' 견본주택을 오는 14일 오픈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5~84㎡, 461가구를 분양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견본주택 입구에 비치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의 체온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지원센터 팀장은 "신종코로나 영향이 미미한 매매 시장과는 달리 분양시장에서는 공급 일정을 뒤로 미룰 수록 수요량이 몰려 청약경쟁률이 과하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브리핑하는 방지환 신종 코로나 중앙임상 TF팀장

방지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TF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확진 환자 확대에 따른 치료 임상 현황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금융위 “자본시장 교란행위, 단호히 대응”

바이러스주 평균 주가 등락률 57% 사이버 풍문 유포 등 집중 모니터링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테마주와 악성 루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과 확산으로 일부 종목의 주가는 급등락했다. SNS·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다.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등락률(코스피 7.0%, 코스닥 7.12%)을 감안할 때 변동폭이 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 고가 매수 행위 반복해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등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 근거없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된 풍문을 유포해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株) 마스크 주, 세정·방역 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은 테마주 형성부터 소멸까지 분류사유, 관리 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변동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김진홍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매수추천 대량 SMS발송과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투자자에게 ▲소문의 실제 확인 ▲주가 급변, 거래량 급증시 추종 매수 자체 ▲허위사실·풍문 전달·이용 금지 등 3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28번째 확진환자 발생… 3번환자 밀접접촉자

약물 복용으로 증상 확인 제한적 3번 환자 동선 일치… 잠복기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8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 환자는 지난 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밝혀져 잠복기간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세 중국인 여성은 28번째 환자로 확진했다고 밝혔다. 28번째 환자는 앞서 확진된 3번 환자의 지인으로 지난 달 26일부터 자가격리 돼 왔다. 자가격리 이후 발열이나 이외 특별한 의심증상은 없었으며 이날 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 격리 중이다.

3번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거주하는 54세 남성으로 지난 달 20일 귀국 후 22일부터 열감, 오한 증상이 확인돼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와 동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어

잠복기가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3번 환자가 확진되기 전인 지난 달 22일 함께 성형외과를 방문했으며, 24

일에도 같은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짜인 24일에 28번 환자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잠복기는 19일을 넘는 셈이다.

다만, 28번 환자가 성형외과 방문 이후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상 확인이 제한적이었던 것이라 예상도 나온다. 28번 환자는 지난 달 진통소염제는 21일부터 28일 오전 까지 진통소염제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번 환자는 국내에 들어와서 28번째 환자하고 동선이 거의 일치하게 같이 가장 가깝게 밀접접촉을 한 지인이기 때문에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주일 정도 진통소염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증상을 본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숨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잠복기를 14일로 지정한 기준은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 범위가 최대 24일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정본부장은 "하나의 논문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잠복기 (기준) '14일'을 변경할 근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국내 확진 환자들의 역학적인 특성을 분석해보면 잠복기가 3~4일 정도인 경우가 가장 많고 또 길어도 7~8일 이내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확진환자는 총 28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퇴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홍콩·마카오도 中 본토와 동일하게 특별검역”

중앙방역대책본부 오염지역 확대

정부가 홍콩, 마카오 지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으로 지정, 검역을 강화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2일부터 중국 본토 외에 홍콩·마카오에 대해서도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중국 본토의 검역과 동일한 절차의 특별검역을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는 36명, 사망자도 1명 발생했다. 마카오

는 확진 환자가 11명 규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홍콩은 지역 사회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마카오는 광동성 인접 지역으로 이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환자 유입될 가능성, 또 마카오 자체의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들을 판단하여 검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한 입국자 정보를 병원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병원과 약국에서는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이력정보시스템(ITIS),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로 환자의 해당 국가 여행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3국' 여행 이력을 제공해 중국 외 국가에서 신종코로나가 유입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의료진들에게는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이나 원인불명의 폐렴이 있는 사람 등을 의심환자로 분류해 달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세경 기자